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

이 경 한*

Understanding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National Identity

Kyeong Han Yi*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들의 국가정체성에 관한 상징들은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서 그 종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태극기, 애국가 등의 특정 상징의 지배 정도는 학년이 높아가면서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이 강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영역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은 저학년에서는 정치적 정체성이, 그리고 고학년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이 정치적 정체성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전환되고 있음과 국가정체성의 주체가 타자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영토적 정체성은 학년과 상관없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영토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진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국가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영토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Abstract :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children's national identity. As children's grades grow, the kinds of symbols of national identity increase rapidly and ratio of major symbols, for examples, the national flag and the national anthem, the national flower decreases. I think it results in reinforcement and differentiation of self-consciousness on national identity, as children's grades grow. And when I analysed the domains of national identity, in the low grade political national identity is major national identity, and in the high grade cultural national identity is major national identity relatively. It means children's major national identity converts from political national identity to cultural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transits from another-based to self-based. But territorial national identity is minor in the all grades. It means territorial national identity should be reinforced in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national identity, political national identity, territorial national identity, cultural national identity

I. 들어가면서

국가에 대한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의 오랜 사회화를 통하여 형성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어린 시절의 학

교교육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국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¹⁾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국가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형성해간다. 이 국가 정체성

*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hyi@jnue.ac.kr

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인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그 형성 과정이 어떠한지 간에, 학생들은 국가정체성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해나간다. 이 소속감은 애국심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 특히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에 형성된 국가정체성이 성인이 된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정체성은 영토에 대한 인식에도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국가정체성은 영토에 대한 소속감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의 형성을 안다는 것은 영토교육의 기초를 안내할 수 있고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리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의 국가정체성에 관한 기초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 특히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 에 대한 연구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지리교육이 국가 영토교육에 대한 주요과목이라면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리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 익산시 G초등학교의 2학년 31명, 4학년 34명, 6학년 32명, 총9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4, 6학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은 연구결과의 구분이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A4 용지에 네모 칸을 만들어 놓은 후,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³⁾. 그런 다음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해서 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즉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과 면담을 하였다⁴⁾. 그러나 특별히 학생들이 표현한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그런 국가정체성이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징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 점은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의 발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 해석과 논의를 하였다.

II.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이해

여기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을 학년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1. 학년별 분석

1) 2학년

먼저 2학년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해보았다. 2학년 학생들은 국가정체성의 상징체로 6가지를 인식하였으며, 평균 1.2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학년 학생들 중 73.0%가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태극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무궁화와 백두산은 각각 13.5%, 5.4%씩의 인식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태극기를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대답하였다(그림 1 참조). 이들이 태극기를

표 1. 2학년 학생들의 국가정체성

주 제	수	비율(%)
태극기	27	73.0
무궁화	5	13.5
백두산	2	5.4
애국가	1	2.7
분 단	1	2.7
한 글	1	2.7
합 계	37	100



그림 1. 2학년 학생이 국가의 상징으로 그린 태극기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극기입니다.’, ‘나는 우리의 애국가를 다 외우고 우리나라를 사랑할거다. 태극기도 아낄 거다.’ ‘우리나라가 떠오르면 태극기가 생각난다. 한국전통음식도 생각나고 한복도 생각나고 무궁화도 생각난다.’, ‘제일 먼저 생각난 건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하면 태극기가 생각난다.’, ‘우리나라의 국기니까!’, ‘애국가를 외우면서 태극기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기여서 그랬다’, ‘학교철판 위에 태극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기니까’,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이니까’,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물건이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것발이다’, ‘우리나라의 국기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국기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아주 소중한 국기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국가의 상징으로 제시한 학생은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궁화를 사실적으로 잘 그려 보이고 있었다. 대체로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관한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극히 일부 학생들은 백두산, 분단 그리고 한글을 국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제시하였다. 백두산과 분단은 영토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글은 문화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백두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단의 경우는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갈라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4학년

4학년 학생들은 14가지를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표 2 참조). 학생들은 평균 1.8개의 상징물을 제시해주었다. 이 국가정체성의 상징들로는 통일, 태극기, 유관순, 한글, 대한민국 지도, 세종대왕, 축구, 독도, 6.25전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태극기이며, 축구, 통일, 무궁화가 그 뒤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국가 정체성의 특징은 2학년의 6가지에 비해서 그 수가 14가지로 확대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물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성격이 점차 분화되는 추세로 볼 수

표 2. 4학년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주 제	수	비율(%)
태극기	22	36.1
축 구	10	16.4
통 일	8	13.1
무 궁 화	6	9.8
유 관 순	3	4.9
세종대왕	3	4.9
애 국 가	2	3.3
한 글	1	1.6
한반도 지도	1	1.6
독 도	1	1.6
6.25전쟁	1	1.6
민속놀이	1	1.6
한 지	1	1.6
분 단	1	1.6
합 계	61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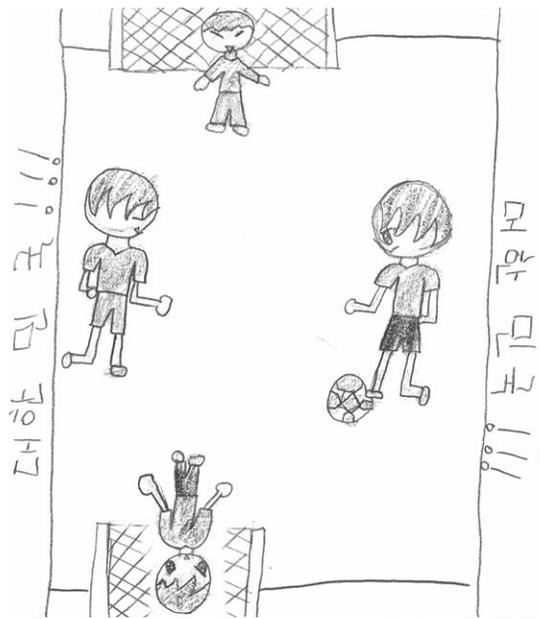


그림 2. 4학년 학생이 그린 국가 정체성 상징

있다.

그리고 태극기가 2학년의 경우 상징의 73.0%에서 36.1%로 낮아진 점이 특기할만하다.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은 축구/월드컵을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하였다(그림 2 참조). 월드컵 축구의 붐이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4학년 학생이 국가의 상징으로 그린 통일

그리고 통일에 관한 강한 열망이 학생들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만하다(그림 3 참조).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상징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2학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학년 학생들이 이들을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제시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태극기의 경우는 ‘태극기 휘날리며’의 지태와 진석이다’, ‘우리나라의 국기도 그랬다. 그리고 세종대왕도 그랬다’이다. 다음으로 축구/월드컵은 ‘2002년 때 우리나라가 4강을 진출한 모습 나는 그때가 가장 생각이 난다’, 그리고 독도는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멋진 공군과 해군이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 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반도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나타냈다’를, 통일은 ‘통일하면 좋겠다는 것’, ‘6.25전쟁 때 나라가 갈라지고 통일을 원하는 마음’, ‘한국이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이다. 그리고 유관순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버린 위인이니까’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학생들은 국가의 상징물을 통하여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라는 바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토에 대한 강한 애착과 애국심이 학생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국가 정체성을 정치적 정체성, 영토 정체성, 문화

정체성으로 나누어 보면, 정치적 정체성은 태극기, 유관순, 6.25전쟁을 들 수 있고, 그 비율은 55.7%를 차지하였다. 영토 정체성은 통일, 독도, 대한민국 지도를 들 수 있고, 그 비율은 17.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문화 정체성은 한글, 세종대왕, 축구를 들 수 있고, 그 비율은 26.4%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가정체성 형성에서 정치적 정체성이 급속도로 약화되는 반면에 문화적 정체성과 영토 정체성이 많이 증대함을 볼 수 있다.

3) 6학년

6학년 학생들은 평균 1.7개의 국가정체성 상징을 제시하고 있다(표 3 참조). 6학년 학생들은 22개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순위를 살펴보면, 한복(그림 4 참조)과 태극기가 가장 높은 비율인 13.2%를 나타냈다. 순위의 상징의 비율이 4학년의 36.1%보다 낮고, 4학년의 2위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정체성으로 나타난 상징들은 무궁화, 한반도 지도(그림 5

표 3. 6학년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주 제	수	비율(%)
한 복	7	13.2
태 극 기	7	13.2
무 궁 화	5	9.4
한반도 지도	4	7.5
축구(월드컵)	4	7.5
김치/고추장	3	5.7
Korea(국호)	3	5.7
장 독	3	5.7
6.25전쟁	2	3.8
고 인 돌	2	3.8
태 권 도	2	3.8
매	1	1.9
에밀레종	1	1.9
군 인	1	1.9
한 글	1	1.9
후삼국시대 영토	1	1.9
사 계 절	1	1.9
진 돛 개	1	1.9
상평통보	1	1.9
분 단	1	1.9
떡	1	1.9
갈 비	1	1.9
합 계	53	100.2



그림 4. 4학년 학생이 국가의 상징으로 그린 한복



그림 5. 6학년 학생이 국가의 상징으로 그린 한반도

참조), 축구(월드컵), 김치, 국호(Korea, 대한민국), 장독 등의 순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이한 것들은 매, 에밀레종, 고인돌, 군인, 상평통보, 갈비 등이다.

이 상징들을 국가정체성으로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면, 태극기의 경우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별다

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무궁화는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꽃이어서’, 한반도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린 것이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 지도이다, 축구는 ‘한국의 월드컵 때 4강 진출한 것’, 고인돌은 ‘우리 조상들의 무덤’과 ‘옛날 사람들이 힘들게 힘을 모아 쌓은 고인돌 위에 힘내라는 우리나라를 그렸다’, 군인은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쟁하려고 해요’, 매는 ‘우리나라 한국의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밀레종은 ‘에밀레종은 어느 소리보다 곱고 뛰어나기 때문이다’, 사계절은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누어진 나라이다’, 진돗개는 ‘우리나라 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진돗개를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상평통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했던 화폐이다’라고 이유를 제시하였다.

6학년의 국가 정체성을 3영역으로 다시 살펴보면, 정치적 정체성으로는 ‘태극기, 무궁화, 국호, 6.25전쟁, 군인’, 영토 정체성으로는 ‘한반도 지도, 후삼국시대 영토, 사계절, 분단’,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으로는 ‘한복, 축구(월드컵), 김치/고추장, 장독, 고인돌, 태권도, 매, 에밀레종, 한글, 진돗개, 상평통보, 떡, 갈비’이다. 그 비율을 보면, 정치적 정체성이 30.2%, 영토적 정체성이 13.2%,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56.6%이다. 6학년에 들어서서 국가정체성의 상징은 매우 다양화되면서 문화적 정체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먼저, 초등학생들의 국가정체성에 관한 상징들이 2학년에 6가지, 4학년에 14가지, 그리고 6학년에 30가지로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징의 종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년의 증가에 따라서 특정 상징의 지배 정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학년에서는 태극기가 73.0%, 무궁화가 13.5%를 차지하고 있으나, 4학년에서는 태극기가 36.1%, 무궁화가 9.8%로, 그리고 6학년에서는 태극기가 13.2%, 무궁화가 9.4%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이 분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이 국가정체성을 갖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 종류도 다양화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초등학생의 국가 정체성 변화

주 제	2학년	4학년	6학년	합계	비율(%)
태극기	27	22	7	56	37.1
무궁화	5	6	5	16	10.6
축구(월드컵)		10	4	14	9.3
통일		8		8	5.3
한복			7	7	4.6
한반도 지도		1	4	5	3.3
김치/고추장			3	3	2.0
애국가	1	2		3	2.0
Korea(국호)			3	3	2.0
장독			3	3	2.0
유관순		3		3	2.0
6.25전쟁		1	2	3	2.0
세종대왕		3		3	2.0
한글	1	1	1	3	2.0
분단	1	1	1	3	2.0
고인돌			2	2	1.3
백두산	2			2	1.3
태권도			2	2	1.3
민속놀이		1		1	0.7
매			1	1	0.7
독도		1		1	0.7
한지		1		1	0.7
에밀레종			1	1	0.7
군인			1	1	0.7
후삼국시대 영토			1	1	0.7
사계절			1	1	0.7
진돗개			1	1	0.7
상평통보			1	1	0.7
떡			1	1	0.7
갈비			1	1	0.7
합계	37	61	53	151	100.5
상징의 수	6	14	30	50	

초등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는 주로 국기와 국화를 많이 떠올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학년에서는 태극기와 무궁화가 가장 큰 비중을 보인 것은 태극기와 무궁화 그리기와 애국가 암기하기 등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영향이라고 본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각종 학교행사, 즉 호국의 달 행사로서 애국가 부르기나 암송하기이나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치적 사회화 과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연령층임을 보여준다.

4학년은 2학년에 비해서 국가정체성의 상징 수가 증가하면서도 그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정체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학년 학생들이 국가정체성의 상징으로 단순하게 태극기를 표현한 것에 비하여, 4학년 학생들은 훨씬 구체적으로 태극기가 쓰이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태극기나 지도 위에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6학년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국가정체성의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6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많이 담겨진 그림을 많이 표현한다. 6학년 학생들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 조형물이나 상징에서 벗어나 국민성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강대국의 이미지를 갖고 싶은 소망 등을 표현하려는 점이 나타난다. 이런 점은 국가의 상징이나 이미지에 자신이 가지는 생각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려 한 점은 2, 4학년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들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의식이 형성되면서 자신의 밖에서 주입되는 국가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고와 가치를 토대로 주제적인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 4, 6학년에 걸쳐서 국가정체성의 상징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은 태극기, 무궁화, 분단과 한글이다(표 5 참조). 이 중에서 태극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매우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궁화 또한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단과 한글은 그 비중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정체성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2학년에서는 정치적 정체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4학년과 6학년도 가면서 그 비중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물론 정치적 정체성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의 비중은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2학년에서 영토 정

표 5. 2, 4, 6학년의 공통적인 국가정체성 상징

	단위: %		
	2학년	4학년	6학년
태극기	73.0	36.1	13.2
무궁화	13.5	9.8	9.4
분단	2.7	1.6	1.9
한글	2.7	1.6	1.9

표 6. 초등학생 국가정체성의 분야별 특성

	2학년		4학년		6학년		평균(%)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정치적 정체성	33	89.2	34	55.7	18	34.0	59.6
영토적 정체성	3	8.1	10	16.4	6	11.3	11.9
문화적 정체성	1	2.7	17	27.9	29	54.7	28.5
합 계	37	100	61	100	53	100	100

체성과 문화 정체성은 그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영토 정체성은 4학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은 2학년에서 2.7%, 4학년에서 27.9%, 그리고 6학년에서 54.7%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초등학생들은 정치적 정체성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국가정체성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초등학생들은 사회과 등의 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점점 영토 정체성이 약간 높아지고, 문화적 정체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치적 정체성은 2학년의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의 교과에서 태극기 및 무궁화 그리기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치사회화를 통한 국가정체성의 형성시기라고 볼 수 있다. 4학년의 정치적 정체성은 태극기, 무궁화, 애

국가에다가 유관순과 6.25전쟁이 가미된다. 그리고 6학년에서는 국호(Korea, 대한민국), 유관순, 6.25와 군인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정치적 정체성은 국가의 상징물을 아는 것에서 애국심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학년에서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그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으나, 4, 6학년에서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관순을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한 학생의 경우, 유관순의 손에 태극기를 들게 하거나, 축구를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한 학생의 경우,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태극기를 활용한 응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화정체성의 경우, 2학년에서는 한글을, 4학년에서는 축구, 한지, 세종대왕, 민속놀이, 그리고 6학년에서는 한복, 태권도, 장독, 고인돌, 김치/고추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축구가 초등학생들의 문화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이다. 축구/월드컵이 학생들의 중요한 문화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학생(4명)보다 남학생(7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중 한복의 경우, 남학생(1명)보다 여학생(7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화정체성 중 일부는 남녀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토 정체성은 학년과 상관없이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학년에서는 백두산과 분단, 4학년에서는 국토통일, 독도와 한반도 지도, 6학년에서는 한반도 지도, 분단, 통일, 영토, 사계절을 영토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토통일과 한반도 지도이다. 다른 경우들은 1회만 나타날 뿐이다. 이는 생각보다 학생들의 영토정체성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영토 문제의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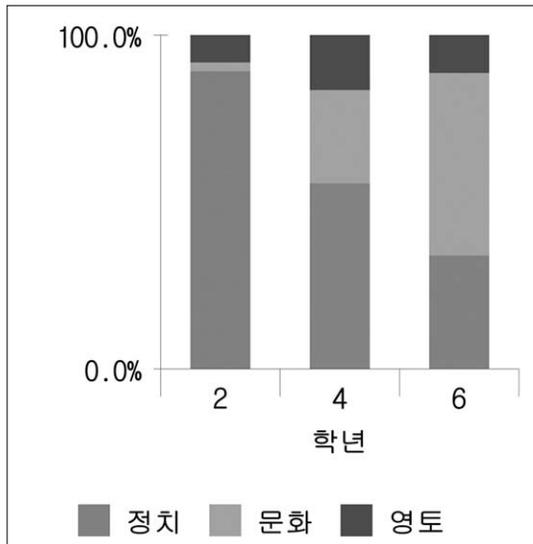


그림 6. 학년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변화

한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독도, 간도, 백두산, 고구려 및 발해 영토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영토 정체성을 어느 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안내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있다.

III. 결론: 지리교육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이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먼저, 학년의 발달과 함께 국가정체성의 상장이 다양화됨을, 다음으로 국가정체성이 정치적 정체성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변화됨을, 그리고 국가정체성의 주체 면에서 타자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사고가 분화되는데서 그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본다. 그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대상이 문화 정체성이고, 다시 이는 문화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 분화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체성 면에서는 국가교육 중심의 정치사회화인 소극적 사회화에서 벗어나 자아 중심의 적극적 사회화로 나아감에 따라서 국가정체성이 타자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영토 정체성은 백두산, 분단, 통일, 독도, 사계절, 영토, 한반도 지도가 전부이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국토통일이고, 다음으로 한반도 지도이다. 학생들은 국토 분단을 넘어서 통일을 이루려는 강한 열망을 보여준 우리의 영토교육의 방향을 시사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국토 통일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한반도 지도를 국가정체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가 현실공간에서 통일을 해야 함을 그들은 한반도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초등학생들은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면서 휴전선을 그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아마도 분단의 모습을 애써 지도 속에서 지움으로써 강한 통일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실제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인 영역에서는 영토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독도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독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이 독도에 관한 정체성은 단 한명의 경우가 전부이다. 일본과의 마찰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고조되었지만 영토 정체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독도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동해도 영토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다. 동해의 표기 문제나 우리 영토에서 동해의 중요성이 학생들에게 각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제시된 고구려 및 발해 영토, 간도문제 그리고 백두산은 영토 정체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영토 문제에 관한 쟁점을 국가대 국가의 문제, 국민감정의 문제, 영토 소유권에 대한 선점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타국가의 마찰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우선시하고, 우리와 영토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나 주장에 대해서 선과 악의 문제로 접하거나 영토문제의 대상들이 너무도 확고하게 우리 것으로 전제하기에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영토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즉, 학생들이 영토 문제 자체를 우리 것이나 선과 악의 인식 등으로 등치시켜 인식하지만, 이 논의의 출발점을 문제 영토의 위치와 그 위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전략적 가치와 소중함을 다룰 때 학생들이 이들을 영토적 정체성을 가지고서 보다 확고히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영토교육에서의 가능성은 사계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 국토의 기후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다른 국가나 대륙의 특성과의 차별성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 영토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잘 제시해줌으로써 영토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니는 국가정체성에서 영토정체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이 낮음은 초등학교 지리교육이 지역 정체성 교육과 계통지리교육이 중심을 이룬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리교육의 근간을 흔들 필요는 없지만, 초등사회과 교과서나 초등교사 교육을 통하여 영토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교육에서 영토정체성을 위한 영토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

- 1) 본고에서는 국가정체성을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소속감, 유대감, 그리고 국가 사랑에 대한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가정체성은 국민의 통합이나 사랑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 등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정체성은 타문화나 타 국가에 대한 배타적 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을 정치, 영토 및 문화 정체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정체성은 국가의 상징이나 엠블럼 등에 관한 태도를, 영토 정체성은 영토와 관련된 태도를, 그리고 문화 정체성은 우리 고유문화나 삶과 관련된 태도를 의미한다.

- 2) 이에 대한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민족 정체성의 담지여부를 알아보는 연구(남호엽, 2001)가 있다. 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아교육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홍은화, 1995; 전경화·박찬옥, 2002). 이 연구들에서는 국가상징, 전통문화, 민족동질성, 민주시민의식 등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의 내용구조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내용구조의 틀을 고려하지 않고서 학생들의 인식 결과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을 범주화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분석틀은 본 연구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 3) 이 연구방법은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주로 이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은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작성하여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 요소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얼마나 선호하는지 여부, 왜 선호하는지 여부를 평정척도나 간단한 서술 방식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작위적인 제한적 방식이 아닌 연구대상 학생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인식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여 대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는 물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실재적 사고를 개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을 너무 즉흥적이거나 장난삼아 응하는 점을 줄이기 위하여 그림이라는 표상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잠재적 생각을 끌어내고자 했다.
- 4) 학생과의 면담은 본 연구가 질적 연구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층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의 반응에 대해서 맥락적인 해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혀둔다.

문헌

- 남호엽, 2001,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정체성과 지역 정체성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은화, 1995, 한국인의 정체성 연구-민족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화·박찬옥, 2003, “의미탐색전통문화교육과 유아의 국가정체성 형성”, 유아교육학논집, 7(2), 33-57.
- Hague, E., 2001, Nationality and children's drawings-Pictures 'about Scotland' by primary school children in Edinburgh, Scotland and Syracuse, New York State,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117(2), 77-99.
- Jahoda, G., 1964, Children's concepts of nationality: A critical study of Piaget's stages, *Child Development*, 35, 1081-1092.
- Zevin, J. and Corbin, S., 1998, Measuring secondary social studies students' perceptions of nations, *The Social Studies*, Jan/Feb., 35-38.
- 최초투고일 : 2007. 07. 03.
최종접수일 : 2007. 08. 25.
- 교신 : 이경한, 560-75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89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khyi@jnue.ac.kr, 063-281-7134)
Correspondence : Kyeong Han Yi, khyi@jnue.ac.kr